# “스님 떡볶이에 희망 담아요”

##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스님이 만든 빨간 떡볶이를 먹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사진〉은 지역에서 ‘떡볶이 스님’으로 통한다. 군부대나 어린이관련 행사를 찾아 어김없이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주기 때문이다. 송운 스님은 사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양식을 담당하던 일류 요리사였다. 출가 이후 요리사 경력을 살려 봉사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어린이들과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봉사활동에 나섰다.

스님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떡볶이 메뉴를 선보인다. 자극적인 매운 맛을 좋아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고추장 떡볶이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치즈 떡볶이나 카레 떡볶이, 여기에 강정 떡볶이를 추가하기도 한다. 스님의 뛰어난 요리 실력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송운 스님이 떡볶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진안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간간이 떡볶이를 만들어 대접해오다 사형인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의 권유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요즘 평균 월 2~3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스님이 올해 ‘스님 떡볶이’를 위해 사용한 떡볶이용 떡은 800kg에 이른다. 300명분의 떡볶이를 만드는데 20kg정도의 떡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송운 스님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스님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설날 무렵이면 진안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22개 마을 회관에 80kg의 떡국을 대접해오고 있다.

송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매우 흡족하다고 한다. 포교의 한 방편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단지 그들이 맛있게 먹고 스님 떡볶이를 기억해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광명사 주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송운 스님은 이 꿈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미 2007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꿈을 꾸게 된 셈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새터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강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식 조리 기술을 가르치면 한국사회에 보다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요리를 접목한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 같은 스님의 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에 설립되는 태고불교문화대학에 사찰음식 조리과가 개설될 예정이라 점차 무르익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겠지만 어린이들과 관련된 분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동량을 제대로 키워내야 하니까요. 스님 떡볶이가 앞장서 포교하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김장을 담그며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 빨간 양념과 버무린 따뜻한 情

## 전주불교연합회, 소외계층에 자비 김장 나눠

전주지역 불자들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위해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전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로 구성된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진성)는 12월 13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은 1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주시 금아동 지역의 홀몸어르신 30명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금산백련마을, 서원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소인 생명평화밥상,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김장김치 나눔행사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보문사 원감 혜원 스님, 연분암 지선 법사, 곽인순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준아 룸비니산악회장, 전북불교대학,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전주불교청년회 등 스님과 재가불자 5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전주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김찬우 금산백련마을 원장은 “올해 김장김치가 부족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전주불교연합회에서 자비행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불교 중흥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전주지역 사암과 재가불자 연합단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포교사 역량 一新 나서자”

##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12월 9일, 포교사전진대회

광주지역 포교사들이 2017년도 활동을 보고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윤중근)은 12월 9일 광주 수자타에서 ‘불기2561년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전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해 시상했다.

식전공연과 법요식, 시상식 등이 진행된 행사에는 현봉 스님(前송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노휴 스님(조계종 포교국장), 전남 4개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윤중근 단장,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재상 안수길, 포교사단장상 장흥수, 행복바라미공로상 이영현, 지역단장상 유준모 · 이동호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포교사전진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포부를 다지는 모습.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포교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늘 한결같은 마음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중근 단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우리 포교사들은 30여 개의 팀을 갖춰 포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단 화합과 단결로 환의 · 감동의 포교를 이끌어내고,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종단을 외호하는 전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별 팀을 활성화해 포교사들을 일깨우는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염불포교팀 △군포교팀 △다문화팀 △사찰문화해설팀 △자원봉사팀 △무소유실천팀 △문화예술팀 △병원포교팀 △어린이팀 △음성포교팀 등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염불봉사, 군법당 지원, 교도소 교정활동,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불교대학 운영, 병원 정서지원, 사찰문화해설, 어린이법회, 합창단, 지역 불교단체 및 사찰행사 지원, 연합봉축행사 활동 등을 펼쳐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희망 가득 한국불교 함께 노력해 만들자”

## 도법 스님, 금산사 송년법회서

금산사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0일 전주 혁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00여 대중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은 송년법어를 통해 “최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아직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비약적이고 혁명적인 접근으로 한국불교가 인류의 희망이자 방향타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전주 혁신도시에 전법의 깃발을 세운 수현사가 전법의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내는 도량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는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새해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정유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원각사, 어린이법회 창립

## 심리운동 프로그램도 운영

광주 원각사(주지 현고)는 12월 9일 미래 포교의 주역인 ‘원각사 어린이법회’ 창립하고 첫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창립한 어린이법회는 연중 스님을 지도법사로 3명의 지도교사와 1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정기법회를 연다.

현고 스님은 창립 법문을 통해 “아이들은 어려서는 부모가 있어야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부처님 말씀 필요하다”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절에 다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어린이 정기법회에는 전문심리상담가들이 참여해 놀이를 바탕으로 한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명산정사
- 주 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445
- 법 명 : 환진 (이미숙)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